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6주일
제27권 34호 (다해) 2007.7.22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사랑 법

목마르고 주릴 때 물과 밥으로 말씀이 되어
굳은 바위를 삭혀 뿌리 내리게 하는 사랑도
가지 끝에 앉아서 말씀의 향기에 몸을 바쳐
향기로운 열매의 자양이 되는 사랑도
똑같은 사랑.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방학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대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성집과 김인숙 마리아, 김마리아
	(생)민석준 토마스와 미애, 애플린 해리아 김태호 아오스딩
주 일 낮 미사	(연)김창배 파스칼, 손석조 마리아, 데니스 웨버, 최원순 황지엽 요셉, 이현호 요한, 김경천, 김명길, 김인영 베드로 김옥희 세실리아, 이영자 마리아, 김옥주 마리아, 박재희 김시형 시칠로, 윤기출 마리아, 오안드레아, 이마리아
	(생)장주란 마리아, 서해경 세라피나, 이종민 요셉 안재만 다니엘, 박진향 테레사와 로렌스, 고규재 체칠리아 김철웅 베드로, 김윤기, 정진확, 김성일 바오로 가정 이귀분 안나, 이영희 카타리나, 권진현 피데스, 안정애 안나 김종렬 베드로, 윤희동 안토니오와 세라피나 가정 김두영 시몬, 구마리아네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8,1-10

화답송 ◎주여 당신 장막에 묵을 이 누구오리까.
<전례성가 84, 연중제16주일 C해>
◎허물없이 살아가며 의를 하는 이, 마음속에
진리를 품은 이, 제 혀로 하리질 아니하는
사람이외다.◎
◎벗에게 해로운 일 아니하는 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이, 악한 자를 눈아래 알이 보아도
주를 섬기는 이면 존경하는 그 사람이외다.◎
◎길미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는 이, 무죄한 이
다칠세라 뇌물 받지 않는 이, 이같이 하는 사람은
쓰러질 리 없으오리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1,24-28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복 음 루카(Luke) 10,38-42

영성제송 주님의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8	229
봉헌	364	188, 241
성체	401	303, 300
파견	357	195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15) ✠

주님께서서는 또 말씀하셨다. 적지 않은 봉헌자들이 그들의 열정을 잃어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부르심을 다른 모든 일처럼 하나의 직업으로, 하나의 의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필요한 것을 포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그들 부르심에 대한 의무를 채울 뿐이라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서는 내게 모든 영성체가 우리 안에 가져오는 열매에 대해 말씀하셨다. 매일 주님을 받아 모시지만 삶에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삶은 주님을 위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성체성사 안에서 받는 은총은 바로 우리 안에서 회심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한 태도에서 그리스도적 이웃 사랑과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입 다물고 있을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는 파견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 가질 권리가 없다. 우리 손에 그렇게도 많은 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굶주려 죽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본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비틀거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렇게도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여전히 계속 많은 것을 받고 있다. 주님의 말씀, 사제의 강론, 성지순례, 화해의 성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비, 생명이며 양식인 성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치, 여러 설교자들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안일함에서 떼쳐나와, 감화원으로, 감옥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다. 그들에게 비록 지금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그들도 가톨릭 신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우리의 교회이며 그들의 교회인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 그들의 고통과 곤궁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이 희생과 이 힘든 시간을 통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할 용기가 없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 곁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묵주기도를 드리고, 악마의 유혹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선과 악의 싸움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로써 그들을 돕는 것,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용기가 없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진다. 그저 그들의 손을 잡고,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 말해주고, 이미 이 세상에서 불려 간 주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곁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해 주는 것,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을 준다.

◆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

제1독서와 복음은 묘한 대조를 보여 줍니다. 근동지방에서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은 왕이다’는 정신으로 낯선 손님들을 모셨고, 이 신비로운 손님들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마르타는 조상들의 이러한 환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의 집에 들르신 예수님의 시중을 드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한편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타가 주님께 마리아를 부엌으로 내보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하시며 이 알미운 동생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요한 2,1-12). 또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마태 11,19)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마련하느라 바쁜 우리의 일상을 결코 하찮게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 명확히 짚어 주십니다.

당신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마르 10,45)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밥을 짓고 마실 것을 내드리는 일은 분명 보람된 일이며,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루카 22,27) 하신 주님의 속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앞서 말씀과 성체의 식탁에서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과 성체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가장 잘 섬기는 길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는 참된 섬김의 순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아, 들어라(신명 6,4)” 하는 권고로 시작하는 구약의 전통을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땀과 희생이 담긴 수고와 활동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요소입니다. 사랑의 봉사가 결여된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하는 복음환호송의 외침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모든 활동은 주님의 말씀과 성체의 식탁에서 귀 기울여 들은 하느님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매이듯 활동과 관상은 함께 해야 합니다.

● 김영국 요셉 신부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당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Linda Jeong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주영 크리센시아	엄영숙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Veronica Hyun
제물봉헌자			토랜스 서 1,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2,720단 ☞ 총 합계: 160,894단
- ◆ 주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방학
 - 9월23일(주일)까지 방학입니다.
 - 주일 낮미사(11시)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사전례 이해를 돕기 위해 제2독서는 영어로 봉독됩니다.
- ◆ 연례회 자문모임
 - 7월29일(주일) 오후 1시~2시, 강당
 - 의제: 연락망 구축, 연도 및 장례절차, 가이드라인 설정
 - 참석대상: 사목회 회장단, 각 신심단체 회장단(요셉회, 안나회, 빈첸시오회, 양업회, 전례부장, 소공동체 부장)
- ◆ M.E. Sharing
 - 7월27일 오후 7시
 - 서성용 베드로 & 용숙 에스텔 부부택 532-3242

- ◆ 배론 청년회 하반기 활동기금 마련 김치 판매
 - 토요일 특전미사와 오늘 주일 아침/낮 미사후 판매합니다.

- ◆ 신약성경 특강
 - 7월23일(월)~27일(금), 매일 저녁 7시30분
 - 제목: 바오로 서간과 요한복음
 - 강사: 손삼석(요셉) 신부, 전 부산가대총장, 성서학박사
 - 준비물: 성경
 - 대상: 남가주 전신자
 - ※ 7시30분에 미사를 드린 후 강의를 시작합니다. 27일(금요일) 아침미사는 저녁미사(오후 7시30분)로 변경됩니다.

- ◆ 여름 건강관리를 위한 침뜸 강의
 - 7월22일,29일~8월5일,19일,26일 매주일 오전
 - 오늘주일: 요일금, 다음주일: 수족냉증
 - 강사: 권진열(피데스), 310-800-3592
-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e, SD)
 - 우리 본당 학생 37명과 교사 6명이 참가합니다.
 -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출발: 7월27일(금) 오후 12시30분 출발
 - 성당도착: 29일 주일, 시간: 추후 연락
 -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묵주, 필기도구, 운동화, 손전등
여벌옷, 주일미사 봉헌금
- ◆ 남가주 여성 제27차 꾸르실료 교육
 - 8월2일(목)~8월5일(주일)
 - 파견식: 8월2일(목) 오후 1시
 - 환영식: 8월5일(주일) 오후 7시 30분, 강당
 - 수강자: 권순길(세실리아), 이정숙(스테파니)
서혜경(세라피나), 구마리아네 수녀님
 - 수강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 사목협의회 임원 전체 세미나
 - 제1차: 7월21일(토), 오후 6시~9시, 강당
 - 제2차: 7월22일(주일), 오후 1시15분~4시, 강당
 - ※ 본당 사목협의회 전 위원(차장, 위원, 구역장, 단체 간부 포함)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토요일 저녁식사는 제공됩니다.
 - ※ 주일 세미나 후 신/구 사목위원 친교 한마당이 있음

☺ 환영합니다. ☺

- ◆ 지난주에 우리 본당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 강태웅 미카엘 & 정옥 안나 가정
 - ☺ 이진행 힐라리오 & 정선 비비안나 가정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인모 김 욱 문충한 박인식 우영희 장수창 주대중 한길선례	강태홍 김원호 민성원 배태임 유선식 장숙환 차인수 이크리스	김상억 김윤진 박광자 서홍삼 육근주 정열모 최진수	김성일 김일선 박상준 안태갑 이상규 정인식 한창주	김수명 김철웅 박선형 오기석 이인석 정정현 홍주희	김옥보 김충섭 박선희 오수인 이재용 정충로	성전헌금	강태홍 김일선 박선희 유선식 장숙환 한길선례	김성일 김철웅 서홍삼 육근주 이상규 정충로 이크리스	김 옥 민성원 오명섭 이인석 이재용 최진수 익 명	김원호 박광자 오수인 이재용 한창주	김윤진 박상준 우영희 장수창 홍주희
	합계 : \$ 5,200	합계 : \$5,520										
미사헌금 : \$ 3,050 (주일학교 캠프 미사헌금 포함)							감사헌금 : 이크리스, 최애경					

공지사항

☉ 감사합니다. ☉

◆ 주일학교 서머캠프(학생 41명, 교사 9명)를 주님의 은총 속에 잘 마쳤습니다. 물적 도움(\$800)을 주신 사목회 위원들을 비롯, 청소년분과위원, 자모회원, 교리교사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세코이아 워터' 식수대를 기증하신 최미예 카타리나 자매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실과 친교장 입구에 설치했으니 교우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7월22일: 소공동체 (김밥 \$3.50, 떡 \$4)
- 7월29일: 토렌스 남2반 (비빔밥 \$3.00)

남가주 소식

◆ 청소년들을 위한 제3차 Summer 영성 피정

- 8월16일(목)~19일(주일)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의집 ● 대상: 9학년~12학년
- 지도: 이유진 신부님
- 참가비: \$110 ● 신청문의: (951)302-3400

◆ 제20회 남가주 성령 쇄신대회

- 8월18일(토), 오전8시~오후10시
- 8월19일(주일), 오전8시~오후5시30분
- L.A. Technical College, Grand Theater
- 강사: 제랄드 월커슨 주교, L.A. 대교구 보좌주교
오웅진 요한 신부, 꽃동네 설립자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한국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박상대 마르코 신부, 백삼위 한인성당 본당 신부
정현철 알렉시오 신부, 성 그레고리 성당 본당 신부
- 연락: (818)480-1615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 후원: 남가주 사제협의회, 남가주 평신도 협의회
가톨릭신문, 가톨릭 방송, 평화신문

◆ 제1차 남가주 청년 성령대회

- 8월24일(금) 오후7시~오후 11시
- 8월25일(토) 오전9시~오후6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초청강사: 문다윗 신부님
신상현(야고보 수사/꽃동네 예수형제회 원장)
- 문의: 본당 기도회 회장 또는 KCRM (310)650-9058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협의회 임원 전체 세미나 오후1시15분, 강당

다음 주 단체 모임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한길선레 스페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페라스티카 782-1025 7/13(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정중미 클라라 373-1237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한나 720-7898 7/17(화) 오후 12시, Hickory Park
	3	임형미 사비나 408-3835	임형미 사비나 408-3835 7/13(금) 오후 7시,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이복임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2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야네스 326-2283	최멜라렛다 213-718-0310 7/21(토), 오후 7시30분,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370-6589 7/10(화),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PV구역 합동야유회 7월14일(토), 오전11시 라이언 광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연중 제 16 주일에 흐르는 두 가지 글

이제 그만...(I)

이제 그만 생각하고 싶다.
 너를 생각하다 찢리고 그를 생각하다 찢기고...
 이제 그만 보아야 한다.
 반짝이는 것을 찾고 두리번거리기만 하는..
 이제 그만 숨소리 하고 싶다.
 거칠게 몰아쳐 오고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이제 그만 다물어야 한다.
 의미가 담기지 못하는 그다지도 많은 언어..
 이제 그만 들어야 한다.
 마음이 저 만치 있는 그렇게나 시끄러운..

이제 그곳에 그만 가고
 이제 그만 그것을 쥐고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르던
 그렇게나 언제나 일 것 같던
 저렇게나 모든 것일 것 같던

석양의 마지막 모습은
 어찌도 그렇게 빨리도
 빨리 들어간단 말인가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이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느껴야 한다.
 중요한 일은 하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게 된다.

이제 그만 ... (2)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누구나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 가지 정도 되는지...
 인간만사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사람이 사는 데는 많은 생각, 많은 일, 많은 인연이
 복잡하게 필요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생각, 말 그리고 일들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 스스로 얽혀 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일은 항상 하나입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이미 다른 일을 모두 해결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마르타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구나
 필요한 것은 한가지 뿐이다."

P.V. 1반 최 진수(예우세비오)